

문서번호	건강관리과-18521
결재일자	2015.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모자보건담당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홍성미	代서명희	이응철	09/25 황원숙		
협 조					

2015년 제3차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2015. 9.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015년 제3차 저소득층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 8 조(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라 2015년 제3차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I 개요

- 일 시: 2015. 9. 23(수) 08:00 ~ 10:00
- 장 소: 성북구 보건소 8층 sb기획실
- 대 상: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위원 외 관련 담당자
- 회의진행: 개회, 보건소장 인사말씀, 2015년 사업안내, 2015년 사업 추진 경과 보고, 안건토의, 폐회
- 참석위원명단

구분	성명	경력	비고
위원장	황원숙	성북구보건소장	당연직
부위원장	윤여은	성북구치과의사회 회장	위촉직
위원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위촉직
위원	정재욱	성북구치과의사회 총무	위촉직
위원	최병재	성북구 교육청소년과 과장	당연직
위원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당연직
간사	이응철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 과장	당연직

의제	회의결과
<p>1. 지속적 참여가 높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격려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가 높은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대한 격려 방안으로 구강위생 관리를 위해 분기별 칫솔을 배부 하도록 함. - 미참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삼진 아웃제 시행을 유보하고, 참여 유도를 위해서 교육청소년과 협조로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보호자에 대한 문자 안내를 통해 사업 홍보
<p>2. 2016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치과의원 참여 신청서 제출 - 2016년 치과치료비 지원단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의사회에서 참여 치과에 대한 사업 안내를 확실하게 하며 신청서를 받도록 함. - 2016년 치과치료비 단가 중 골드클라운에 대해 추가하고 지원금액은 350,000원으로 책정 - 2016년 사업예산에 따라 내년 회의 때 다른 지원 금액 단가 조정 하도록 함.
<p>3. 박경화 위원 사퇴에 따른 신규 위원 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위원 추천은 치과의사회에서 하도록 하며, 관내 치위생학과 또는 치의학 대학 교수 중 추천 - 추천 신규 위원대상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위촉 공문 발송
<p>4. 기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진료 예약 후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치과의사회에서 협조 독려하도록 함.

III

후속조치사항

- 회의록 공개
- 협의 결과 사업 반영
- 참석 위촉 위원 수당지급

(회의 진행시간 2시간: 100,000원×3명 = 300,000원)

- 회의 사진



- 붙임 : 회의록 1 부 끝.

2015년 제2차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회의록

I. 개회 (사회 : 이춘옥 팀장님)

- 참석위원소개

위원장님인 황원숙 보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여은 성북구 치과의사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은영 성북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욱 치과의사회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병재 성북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애경 성북구 보건소 치과의사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사이신 이응철 건강관리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II. 인사말씀 [황원숙 소장님]

III. 2015년 사업 운영 현황 보고[이응철 과장님]

- 회의 자료 참고

그럼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체 위원장님인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 안건토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IV. 안건토의 (진행 : 황원숙 위원장)

안건토의를 진행함에 앞서 회의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이 약 790만원 정도 나와있는데 요? 이것은 12월까지는 다 집행하는 거죠?

[홍성미 담당자]

네! 자료를 보시면 치과치료 진행 중인 아동이 51명으로 이 아동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치료중인 아동 5명에 대한 집행 예정액인 것과, 치료 대기 아동이 4명이 있는데 이 아동들 4명이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슨 의미죠?

[홍성미 담당자]

계속 진료 예약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아동센터에 전화해서 치료 받을수 있게 진료 예약을 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데려가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12월까지 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안되면 봉사자를 활용해서 치료를 받도록해야할 것 같습니다.

치료대상을 208명으로 정했는데 그 중에서 4명 아동이 아직까지 치과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4명이나 안하면은 차순위 아동을 지원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홍성미 담당자]

현재 검진이 다 이루어 지고 대상자를 치과진료 의뢰를 하도록 하였는데 4명이 예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8명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대상 845명 중에서 208명만 치료가 필요하고 나머지 아동들은 모두 건강하다는 건가요?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으로 오는 차상위나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208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4명이 계속 안하고 거부를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기회를 주다가 다른 필요한 아동에게 넘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4명을 꼭 치료 받도록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견주시죠.

[홍성미 담당자]

저희가 그전 회의 때 3개월까지는 치료 받을 시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른 아동에게 치료 기회를 넘겨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명아동은 언제까지 안니까?

[홍성미 담당자]

3개월이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기다렸다가 계속 거부를 하면 다른 지원해줄 아동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할 아동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위원] 네 동의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아동을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790만원 남은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홍성미 담당자]

현재 남은 790만원하고 추가로 시에 요청해서 300만원이 더 내려올 예정이라 예산은 충분합니다. 시에 추가 요청시 삭감될 것으로 예상 했으나 300만원 다 내려 주셔서 여유가 있습니다.

790만원에서 300만원 추가하며 1090만원을 12월까지 다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예산이 남게 되면 치료 대상 학생들을 다시 검진해서 더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홍성미 담당자]

2차적으로 충치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다면 더 지원 가능 합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예산내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더 치료해서 더 많은 아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한 아동당 40만원 이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홍성미 담당자]

예산은 40만원까지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의 여유분이 있으므로 추가로 40만원 내에서 추가 아동을 더 치료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지속적 참여가 높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격려방안

첫 번째 안건이 지속적 참여가 높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격려 방안 인데요?

4년 연속 참여 아동센터가 12곳이고 2015년도 미참여 지역아동센터는 3개소입니다.

그래서 12곳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 계속 미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안건인데요. 우선 지속적 참여도가 높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격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지역아동센터 회장님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네! 제가 지금 명단을 쪽 보니 올해 같은 경우 미 참여 사유가 적혀 있는 센터들이 있는 데요. 제가 이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참여를 못한 사유는 센터장님들의 상황들이 변동이 있다든지 센터가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요. 아동들이 몇 명 안되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치료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 못하신 기관이 대부분이신데요. 장위희망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장위3동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오늘 내일 이루어 질 것 같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올 9월에 시행인가가 나서 이전 하게 되셨어요. 지역아동센터를 하나마니 몇 년동안 고민하고 계셨다가 올해 이사 결정이나고 센터를 장위1동으로 이전을 하시고 이후 부터는 저희 회의라던지 열심히 참여를 하시거든요. 센터에 상황에 따라서 또 센터장님의 건강 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참여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거라서 이것을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진아웃을 해야하는 이유가 뭐죠?

[홍성미 담당자]

강하게 의사를 표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참여하라고 지역아동센터에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힘에 부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좀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강공법을 쓰는 건지요?

[홍성미 담당자]

참여 독려를 하기 위한 한 방안이고요. 연속적 3년이상 참여를 안하셨다는 것은 참여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참여 안 한 아동센터는 자구책으로다가 이런 치료를 법안에서 해준다 던가 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홍성미 담당자]

조사를 했는데요. 따로 어디서 지원 받거나 하는 곳은 한곳 이외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4페이지 1번 아래도 나와있는데 학교에서 교육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 학생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위동지역은 다 교육복지사업을 하는 학교이고 그 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에서 지원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수가 많지가 않아요.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 등 제한적이고 그것을 핑계로 하시지만 센터장님들의 여유가 없어서 챙기지를 못하시는 것이거든요. 표에 보시면 3년 연속으로 참여를 안한 지역아동센터는 장위 희망 지역아동센터 였는데 올해 참여를 하셨어요. 실제 3년 연속 참여를 안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 3년연속 미참여 지역아동센터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엔 3년 연속 참여 안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것도 아닌데, 2016년 사업에 참여 안하면 삼진아웃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아동 위주로 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영세민 아동들은 치료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와주세요와주세요'하고 사정사정하면서 돈을 지출 하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내원하는 영세민 아동들에게 우선권이 갈수 있도록 삼진아웃제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해서만 예산을 거의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은 의료보험이 되어서 제외를 시키는 것인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만 우선을 하는 건 왜인지?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이 사업 자체가 지역아동센터가 우선이에요. 보건소로 개인적으로 내원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아

동 몇 명정도는 치료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지역아동센터 아동 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삼진아웃제 등을 시행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아동을 더 지원해 줄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도 비급여 항목은 돈을 내야 하잖아요? 지금 지원 내역에 비급여가 들어가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들도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요. 김은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예산이 많지 않을 것이고 작은 액수 지원이고 대상자수도 아주 적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많은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참여를 계속 안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삼진아웃제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저는 보건소에서 얼마나 에로사항이 많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고요. 삼진아웃한다는 것은 민원에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이지만 저소득층 아동들도 케어할 수 있도록 참여하지 않는 지역아동센터는 할당제로 지원하고 삼진아웃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도 지원을 원하면 해주도록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진아웃제는 추진은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2개소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님이 열심히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데 어떤 격려방안이 좋을까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센터장님의 생각이 크게 좌우가 된다면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개별 공지가 가능한가요?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서 참여를 못하는 것인가요? 구청이 되었던 어디든 부모에게 아이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지를 해주면, 지역아동센터 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데는 상관없지만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보건소에서는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니 그분들이 알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 차원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 개별적으로 공지가 되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보건소에서도 매번 사업이 시작되면 메일을 보내주시고 회의 때도 안내를 하고 3월에 시작하시잖아요. 센터장님의 의지도 필요하고, 각 가정에 구청이든 학교에서든 안내문이 나가 지역아동센터

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가 보건소에 가서 개별적으로 갈수 있겠지! 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센터장님들이 몇 날을 잡아서 인솔을 해서 가야하는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저희 센터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40명인데 한 날에 다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생 따로 중학생 따로 나눠서 가거든요. 30명이 넘으면 한꺼번에 30명 진료 하시기 힘들시기 때문에 나눠서 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4년 연속 지속참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격려 방안이 필요할까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그렇게 해주시면 다른 센터들이 더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까 합니다. 방법은 어떤 것을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치과의사회회장님 말씀은 일단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에게 직접 안내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가능한가요?

직접공지를 하려면 문서를 작성해서 편지형식으로 등기로 발송해야하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명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명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등기 발송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고지 의무가 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만 요즘은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들에 대한 전화번호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보건소에서 명단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이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팀에서 저희 아동 명단이랑 주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저희 과에서 명단을 줄수는 없고요. 홍보기간이나 그런 정보를 주시고 보호자에게 공지하면 센터장님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센터장님들도 아동 부모들에게도 고지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최병재 위원님께서 과에 명단이 확보가 되어있는 아동들 보호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장님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면 센터장님들도 참여를 안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 팀에서 명단을 확보하고 있음으로 정보를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저희가 명단을 보건소에 드리는 것은 불법일수 있어 부담스럽고 구강사업하는 좋은 일에 사업을 대행해서 기간 일정에 대해 알려주시면 문자로 사진을 찍어서 발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사업할 때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2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격려방안을 할지 팀에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홍성미 담당자]

저희는 치과적인 방향으로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칫솔 자외선살균기를 구매해서 드리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양치를 하나요? 식사하고?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지역아동센터 평가에서 사업시설 평가를 3년마다 받는데요. 아이들 위생관리에 대한 것을 해야 합니다. 2009년 ~10년 평가 때 칫솔 살균기를 다 구매 해서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새로 사서 있기는 있습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저는 칫솔 살균기 보다는 칫솔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아이들 칫솔이 한달만 써도 벌써 헤져서 한달도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치과위생관련 물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예산이 있습니까?

[홍성미 담당자]

칫솔이나 이런 것은 구비 확보한 것이 있어서 구매 가능하고요. 내년 예산도 증액을 해서 확보 된다면 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소만 칫솔을 주는 것보다는 다줘야 하지 않나요?

[홍성미 담당자]

다 지원해 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칫솔 소독기도 몇 년지나서 없을 수도 있고요. 4년 쓰다가 교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칫솔에 세균이 번식을 잘하고 많잖아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칫솔 소독기 보다는 칫솔을 교환하는 것이 더 위생적입니다. 칫솔 소독기는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소독이 되어야 좋을 것 같은데, 칫솔을 짜거기를 다 제거 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햇빛에 말리는 것이 더 위생적입니다. 칫솔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소독기에 넣으면 칫솔 자외선 살균기라고 해도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서요.

저는 보건소나 치과쪽에서 어떤 센터들을 벌을 주고 상을 주고 한다는 것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 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서 평이 새를 무서워하기보다는 매를 무서워하잖아요. 센터 등록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던지 구청장님 상을 추천한다던지 하면 협의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 표창을 12명 다 추천가능한가요?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12명을 다 추천하는 것은 희소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몇 군데는 구청장님 표창을 올려보도록 하고요.

살균기 보다는 칫솔이 나은가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칫솔이 더 효율적입니다.

칫솔 말고 더 추천할 것은 없나요?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불소도포사업 때문에 나가보면 부모님들의 인식이 아주 떨어지세요. 이런 칫솔가지고 이를 닦나 할 정도의 칫솔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살균기 있다고 해도 거의 형식적이고, 거의 틀어 놓지 않는 데가 대부분이고 틀어놔도 칫솔끼리 거의 맞붙어 있어서 위생에 안좋고요. 칫솔을 한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칫솔을 일년에 몇 번 지급을 하는 것이 효율 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에 다 지급하지 않고요?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칫솔을 개인이 사오나요?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 칫솔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하면 보호자에게 말해서 집에서 가져 오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칫솔을 지급하는 의견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한꺼번에 다 주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 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년네 3번이나 4 번 주면 그때마다 칫솔질을 잘 해야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분기별로 주시면 아 칫솔 바꿀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인식하고 더 관심을 갖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욱 치과의사회 총무]

3개월마다 분기별로 지급하며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칫솔을 3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칫솔을 몇 개나 구입할 수있나요?

[홍성미 담당자]

칫솔은 많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일회용은 아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칫솔을 구입하여 주고 있습니다.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하면 서운해 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 구강 위생문제도 있고 해서요.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다 줄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상으로 칫솔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올해 배부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더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최병재 교육청소년과 과장]

내년에는 다 참여하신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 안건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 2016년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사항 등

두 번째 2016년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함 개선사항 등에서 첫 번째 참여하고자 하는 치과

의원에 참여 신청서 제출 요청이 있는데요?

[홍성미 담당자]

지금은 저희가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단체로 명단을 받고 있는데요. 치과의사협회에서 조금더 신경을 써주셔서 회람 돌릴 때 신청서에 사인을 받아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치과에 의뢰를 할 때 전화를 하면 개별적으로 우편 안내문을 치과로 발송했어요. 그런데 안 읽어 보셨는지 본인이 참여를 하셨는지 모르시고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시더라고요. 본인이 읽고 사인을 하시면 한번더 인식을 하시게 되니까요. 사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선방안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회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지원단가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미 담당자]

2015년 지원 단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치과의원에서 더 요청을 하거나 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액이 안맞다거나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수가가 치과 일반 수가에 70%선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면 치과 일반적인 수가의 70%선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진료비 지원단가표를 보시면 아말감, GI 등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면 되는 거고 레진, 치석제거 등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사실 치료에 주를 보면 레진이 많습니다. 그러나 레진 수가가 부족하긴한데 수가를 올리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금관에서 골드크라운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성미 담당자]

저희가 골드크라운이 단가가 높아서 메탈크라운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골드크라운을 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라믹보다 금이더 비싼가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골드크라운도 질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는데요. 금액을 35만원으로 책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레이에는 골드가 있는데 금관에는 골드가 없네요. 그럼 세라믹크라운이 38만원이니 골드크라운은 35만원으로 추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진같은 경우는 올려드려야 하나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허용되시면 올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홍성미 담당자]

레진 수가는 아동들 치료 중 레진이 너무 많아서 올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몇 년씩 같은 금액 아닌가요?

[홍성미 담당자]

올해 초 회의를 통해서 5,000원 인상해서 6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정재욱 치과의사회 총무]

저희가 작년엔 요청을 해서 올해 인상한금액이기 때 때문에 내년엔 더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그럼 2년에 한번씩 올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레진에 대해서는 2016년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금액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가 결정까지 토의 했습니다.

다음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박경화 위원 사퇴에 따른 신규위원 추천

박경화 위원님께서 더 이상 참여를 못하시는 것으로 알려오셔서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추천하실분 있으신가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치과사업이고 하니까 치과위생과 교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가까운 대학에 요청을 해서 교수님을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화 교수님이 치위생학과 교수님 이셨으니까! 치위생학이나 치과대학 교수님으로 치과의사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저희가 추천을 하면 보건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과의사회에서 추천을 해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신규 위촉 공문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저희가 학교일정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추천하는 본인 불편하지 않도록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치과의사회에서 추천하고 보건소에서 위촉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4) 기타,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나머지 기타 안건으로 말씀하실 의견 있으면 위원님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 어떤 치과에 갔더니 예약을 하고도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정도 대기
를 하고 치료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약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 1학년 아
이가 총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 새로운 치과에 갔는데 오랜 기간 치료를 해야하는데 갈 때
마다 한시간씩 기다리니까 인솔하는 선생님도 아무일도 못하시고 거의 두시간 가까이를 치과에 왔
다갔다하면서 보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저희도 예약제로 환자를 보는데요.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해요.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치과에 갈 때마다 매번 그러니까요!

[고애경 성북구보건소 치과의사]

저희도 그래요. 시간을 예상해서 예약하는데 어떤환자는 한시간을 끄는 환자도 있어요. 30분
한시간을 잡고 안와주는 환자가 있어요. 그럴때는 어쩔 수 없이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 눈치도 보
이는데 이분을 딱 잘라서 보낼수가 없어요. 해결이 되기전에는 그 다음 환자를 못부르는 거예요.
치과의원에서도 마찬가지로일거예요. 환자를 보시기작해서 30분이면 되겠다는 환자가 한시간이 걸리
는 경우도 있고 한시간 반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윤여은 치과의사회 회장]

치과라는 것은 정말 환자가 누워 있어야 하고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전부 손
으로 하는 작업이라 마음대로 진료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과나 이빈후과는 빨리 회전이 되는데
누워있으면 30분이상 걸리는 거예요. 예측가능한 상황만 발생해야 하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예약을 한다고 하면 미국처럼 하루에 3~4명 보고 끝나는 시
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되죠. 예약을 하더라도 20~30명을 예약을 해서 진료
를 하는 시스템이라 참 어려움이 많습시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 유지가 안되요. 정말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서 치과의 진료 특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저희 선생님이 2012년에 입사를 하셔서 계속 4년 짜 치과 동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이고 새로 처음간 치과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음에는 이 치과에 의뢰를 하지 말아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재욱 치과의사회 총무]

한두번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매년 그렇다면 계속 다니기가 힘들고 그렇게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영 성북구지역아동센터협회 회장]

치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치료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정재욱 치과의사회 총무]

참여를 희망하는 치과는 여러 곳이라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다른 치과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더 말씀하실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건토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의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4명 진료예약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아동은 10월말까지 독려를 하고 안되면 다른 아동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7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서울시 예산 추가해서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 예산이 남는 경우 새로운 아이들을 더 발굴해서 치료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 불용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미참여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기위해서 교육청소년과 최병재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아동 보호자에게 개별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수 있도록 조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6년 참여하는 치과의원에 대한 안내 및 신청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하였고, 지원단가는 크라운 골드를 35만원으로 추가 하는 것으로 하고 레진의 단가는 예산의 수급 상황을 봐서 내년 첫 회의 때 단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화위원 사퇴에 따른 신규위원 추천을 치과의사회에서 추천해주시는 분을 보건소에서 다시 공문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치과진료 예약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잦으면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사무장님께서 치과에 전달해주시고요.

사무장님도 한말씀해주시죠.

[성북구 치과의사회 사무장]

내년에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공지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으로 오는 아동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써주시라고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안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년에 세 번 회의를 하는 데 회의가 참 보람이 되는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구강건강이 더 좋아 질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격려방안은 첫

솔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건토의를 마치겠습니다.

V. 폐회 (이춘옥 팀장님)

이른아침에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구강보건팀에서는 아동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